전가빈 개인전

《플렉서블》

〈탄력적 유연함〉
2021
시멘트, 철근
174(h)x64x73cm

전시개요
전 시 명 : **《전가빈: 플렉서블》**
전시기간 : 2021년 6월 9일(수) – 6월 30일(수)
전시장소 :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조각 4점, 부조 3점

담 당
조윤성 cho@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10609-20210630_전가빈, 플렉서블

1. 전시 개요 및 작가 소개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2021년 6월 9일(수)부터 6월 30일(수)까지 **전가빈**(b. 1988) 개인전 《**플렉서블**》을 연다. 2021년도 2분기를 여는 첫 번째 전시며, 작가의 네 번째 개인전이다. 전가빈이 올해 제작한 신작을 만나볼 수 있다. 전가빈은 이번 전시에서 '유연함'이라는 형용사에 주목한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어딘가 불편하기만 현대의 유연함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본다. 견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어버리고 마는 건축 재료의 특성을 작품으로 풀어낸다.

전가빈은 1988년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났다. 2014년에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조소전공을 졸업한 후 2017년 동 대학원을 수료했다. 통의동 보안여관(서울),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청주), 오!재미동(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영은미술관(광주), 챕터투(서울), 아트센터 화이트블럭(파주)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영은미술창작스튜디오(광주),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천안),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청주) 등의 레지던시에 입주한 이력이 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2. 작품 소개 및 전시 전경

■ 주요 작품

〈유연한 태도〉
2021
시멘트, 철근
57(h)x25x25cm

〈능동적인 유연함〉
2021
시멘트, 철근
63(h)x25x25cm

〈유연한 소비〉
2021
시멘트, 철근
69(h)x25x40cm

〈데몰리션〉
2021
시멘트, 철근, 우레탄폼
46x180cm

■ 전시 전경

Hakgojae Design | PROJECT SPACE Installation view

3. 작가와의 대화

Q. 전시 제목을《플렉서블》으로 정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동력이 상실된 지금, '플렉서블(유연한)'은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강요되는 형용사 중 하나일 것이다. 다수의 매체들이 유연한 근무, 유연한 투자, 유연한 사고방식 등 살아남기 위해선 반드시 유연해야만 한다고 연일 떠들썩하다. 하지만 무기력함이 만연한, 지금 시대의 유연함은 불편하기만 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유연함도 아닐뿐더러 유연하기 위해 소비하고 소모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어느 때보다 파괴하고, 다시 시멘트로 구축하여 경제를 유연하게 회전시키는 현대의 유연함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자 한다.

Q. 근작의 소재들은 어디에서 왔나.

인물 조각상은 인물을 혹은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로서 제작되고 있다. 인물은 이미지를 통해 실재하는 것으로 사유와 기억을 공유하는 형식을 띤다. 동시대의 사건의 기억을 소유하기 위해 미디어를 통해 무작위적으로 송출되는 정보들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불편하게 느끼는 인물 혹은 인물들의 특정 행동을 통해 당대를 기록하려는 근거로 선정하고 있다.
〈데몰리션〉의 경우, 과거 한때 유행하였던 외계인 콘셉트 '데몰리션 노래방'의 떨어져 나간 시멘트 외벽 간판을 모티브로 삼았다. 요즘 흔히 과거에 유행했던 것을 다시 꺼내어 그 향수를 느끼고 옛날로 돌아 간 듯한 감성적인 카페나 음식점을 선호하는 뉴트로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종종 과거가 미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작금에 불확실한 미래의 모습은 경제적인 초성장을 이룩할 시절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꿈꾸던 희망적인 사회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당시의 열광했던 이상은 모두 낡아 떨어진 시멘트 한 줌이 되었고, 이를 표현방식으로 현대인이 목도하는 욕망을 표현해보고자 하였다.

Q. 주로 건축에 사용하는 재료를 작품에 사용하는 점이 흥미롭다.

현재 도시의 기본적인 건축 구조를 만드는 재료인 시멘트는 견고한 재료이긴 하지만 매끈하게 성형하기가 쉽지 않고, 시멘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가거나 부분이 조각나거나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타일이나 페인트 혹은 다른 부재들로 감춰져 버리기 마련이다. 이러한 재료의 속성에 착안하여, 본인 작업의 주제와 잘 맞는 성향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외면에 약한 속성들도 자리 잡고 있다는 이면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인 작업들은 모두 머리와 팔, 얼굴들이 손상되고 곳곳의 균열과 철근이 노출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 사회상태가 임계치의 근방에서 겨우 지탱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경이로운 성장을 위해 토건사회를 지향했지만, 현재까지도 탈출을 위한 방법으로 토건을 대책으로 삼고 있다. 파괴를 통해 생산된 부산물(시멘트, 철근)은 어렵지 않게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으며, 부서진 시멘트 덩어리에 박힌 철근의 이미지는 오히려 시멘트를 더욱 시멘트처럼 보이게 한다. 유지보수를 한다면 더 오래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비용이 신축 이상으로 발생하고 안정성에도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당히 이용하고 부수는 것이 이득이며, 파괴와 재조립의 무감각한 현상의 반복에서 느끼는 무기력함을 작품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4. 작가 약력

전가빈

1988 경상북도 포항 출생
2014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조소전공 졸업
2017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대학 조소전공 석사 수료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2021 플렉서블,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2018 더 소유하고 더 존재한다, 오!재미동, 서울
꿈으로 끝나버린 꿈,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4 아이돌,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

단체전

2021 비탈길을 좋아했지,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20 잘 못 보이고 잘 못 말해진,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 서울
2019 청춘! 아팝트, 수창청춘맨숀, 대구
2018 유니온 아트페어 – 렛츠 메이크 투게더, 에스팩토리, 서울
포스트-프로토타입, 챕터투, 서울
봄과 봄 사이,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7 유니피케이션, 문화공간 바이산, 서울
숨겨진 것들, 영은미술관, 광주
플레이&디스플레이, 갤러리허브, 서울
2016 30, 갤러리 메타포, 서울
2015 탐욕, 성, 디스토피아, 꽃,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96시, 갤러리 일호, 서울

레지던시

2021 영은미술창작스튜디오, 광주
2019-21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천안
2017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